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트릭아이 미술관

날씨 좋은 일요일이라 엄마가 어디로 놀러 갈지
검색해 보다가 재미있는 곳을 찾아 냈다.

바로 트릭아이 미술관이다. 트릭아이는
눈속임 그림이라는 뜻이다. 나는 엄마,
동생과 함께 트릭아이 미술관으로 갔다.

평범한 그림이지만 우리 눈에는 진짜
처럼 보였다. 내가 사진을 찍으면 동생도

찍어 달라고 했다. 안 찍은 사진보다
찍은 그림이 더 많았다. 안 찍은

그림은 다음에 가서 찍어야 겠다.

그리고 직원이 준 그림 찾기 종이에 그림을
찾아서 과자와 초콜릿을 받았다.

그림이 너무 신기해서 깜박 속을 뻔 했다.

여러가지 체험을 하다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나도 커서 눈속임 미술을

그리고 싶다. 트릭아이에 가면 누구든지
많은 체험과 웃음을 가지고 온다.

